

충현의 만나

데살로니가전 · 후서

디모데전 · 후서



기 도 제 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하여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 충만을 위하여
4.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위하여
5. 전 교구의 영적 부흥과 배가 성장을 위하여
6. 교회학교와 찬양대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7. 세계 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3년 4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4월호 집필을 위하여 조동원 · 이종대 · 정광욱 ·

장봉생 · 김수상 · 박정규 목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 · 후서 서론

바울의 최초 서신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전 · 후서는 AD 50년경 봄에 전서가, 그리고 그로부터 2,3개월 후인 같은 해 여름에 후서가 각각 기록되었다. 이 최초의 서신은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던 기간에 기록되었는데,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르게 교훈하고 확증하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특별히 종말론,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디모데전 · 후서 서론

디모데전 · 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도 호칭되고 있는데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서는 AD 65년경 마케도니아에서, 후서는 바울이 순교한 해인 AD 68년경에 두번째로 로마의 옥중에 갇혀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최후의 서신이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특히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도록 기록되었고 후서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며 자신의 기대를 알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격려하며 교시(敎示)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살전 1:5)

열대지방의 어떤 산악 지대에서는 때때로 밤의 정적을 가르는 크고 날카로운 총소리 같은 폭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소리는 태양의 뜨거운 열을 받은 바위들이 쪼개지는 소리라고 합니다. 매일 열대의 직열하는 태양의 뜨거운 햇살을 받고 뜨거워진 바위가 식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쪼개지고 바스라져서 급기야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듣는 사람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저항으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일지라도 복음의 빛과 열로 인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복음을 말로만 받아드리는 것은 파멸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첫째, 주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6절). 즉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둘째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7절). 믿음의 진실성과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말씀을 듣는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범은 어떠한 간증이나 교훈집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모든 이웃에게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 기도 /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살전 2:3)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알고자 하는 일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들의 전도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아첨하는 말로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허영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끈기 있게 인내하는 온유함으로 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이 행한 전도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유함은 인내와 진취적인 행동에 있어서 밑바침이 되는 힘입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도 온유함은 마침내 성공으로 이끕니다. 이 온유함은 깊은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해서 육성되고 조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신앙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 기도 / 우리의 심령 속에 온유함을 충만히 주소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살전 2:18)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엡 2:2)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고후 4:4)입니다.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기도 했지만 복음의 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롬 16:20). 그러기에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복음 전파의 길을 막으려해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기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이 미래의 가장 큰 보상 중의 하나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20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전도의 삶을 살며 영혼을 구원한 자들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고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 기도 /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살전 3:10)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보이라”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성장을 위하여 본문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주께서 넘치게 성장시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12절). 그리고 사랑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12절). 셋째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13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장이 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장은 사랑의 성장입니다. 사랑의 성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뜨겁게 이루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섬김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성장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주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성장을 주소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4:18)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위로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가 떠나고 다시 돌아와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계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15절)라고 말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거룩하신 구속자의 호령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장의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고 있던 자들이 홀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것입니다.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를 준비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서로 위로 하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오늘 이루어졌습니까?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우리는 오늘 해야 합니다.

▶ 기도 /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살전 4:9)

사랑은 완전의 띠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켜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황금의 띠입니다. 이 사랑의 띠로 인하여 형제의 사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형제 사랑을 위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형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15:17)라고 했습니다. 본능적인 인간은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형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 5:2)고 했습니다. 둘째, 형제 사랑은 실천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셋째, 형제 사랑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역사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울 사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되고 형제의 사랑이 확대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형제 사랑이 신장되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보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 기도 / 형제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살전 5:6)

데살로니가전서의 모든 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언급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도 재림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우리의 종말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다미선교회라는 집단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홀연히 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야기를 가진 산모가 날이 가고 달이 차면 자연히 야기를 낳듯이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세상의 징조와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경건히 깨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대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근신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충실히 행하는 균형있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직장에 가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종말 신앙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종말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전하게 하루하루 생활을 충실하게 행하며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신앙으로 깨어 근신합시다.

▶기도/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이 깨어 근신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지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자신있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모든 일과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지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란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환란 때에도 기쁜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이 됩시다.

▶ 기도 / 항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살전 5:25)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먼저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세상의 복을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肉鮮)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 법(잠 17:1)이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잠 15:16) 나은 법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미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24절). 미쁘다는 말은 믿음성이 있다. 미덥다는 말로써 결국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확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인 그 분께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합니다(약 5:15).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28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하여 평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도 얻고 믿음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 기도 / 우리 가정 위에 평강과 믿음과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함께 못박게 하소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살후 1:4)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핍박과 환난을 이기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신앙이 자라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3절). 또한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자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4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참된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심판의 고통을 주십니다. 본문 5절의 심판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신자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까닭으로 핍박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이라고 합니다(7절).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 혹은 믿는 가족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벧전 4:16,17)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 기도 / 온 가족이 합심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주님만 살게 하옵소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 2:3)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의 편지(데살로니가전서)를 받은 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로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바울은 종말의 징조인 적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며 충실한 신앙 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호전적이고 극적인 반란을 유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일, 즉 배도하는 일을 불법의 사람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란 모두 적그리스도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합니다(4절). 그는 또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며(9절) 불법의 모든 속임수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10절).

이러한 불법의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도의 일을 저지르게 되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멸망하게 되며 구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본문 8절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 위에 강림해 계실 때 악한 불법의 사람은 물러갈 것입니다.

▶ 기도 / 우리 가정 안에 사탄의 역사와 거짓이 물러가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을 전하는 산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살후 15)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13절).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13절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선택에 대한 감사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15절). 여기에서 굳게 라는 말씀은 변함없이 지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끝으로 선한 일과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17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과 소망의 말로 굳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며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기도 / 말씀을 굳게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등 모든 면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소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왔으므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기 위하여 이 세상 일은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믿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등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버리고 일터에서 떠나 날마다 모여서 돌아다니는 것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방문하고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으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기꺼이 공급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니 그야말로 일만 만드는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강한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은 물의를 일으키는 자들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은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빙자하여 직장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 기도 /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북한이 북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딤편 1:5)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 양육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교훈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원저자이십니다. 3절의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신화와 족보이야기를 가르치며 교회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신화는 허탄한 이야기나 잡담 등의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성경의 족보에서 특정 인물을 발췌하여 거기다 가공적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인간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만이 청결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이 가능하며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이론이나 긴 이야기도 다 허탄한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거듭거듭 확신있게 전해야 하며 그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중생의 감격을 맛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난과 부활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의 풍성을 체험하며 나눠주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는 자기의 지식 자랑이나 경험 드러내기를 조심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 /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의 교제가 왕성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선교사역에 역사하시고 가정 위에 건강의 복을 주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편 1:12)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궤방자요, 꺾박자요, 포행자
로 있었으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시고 일꾼을 삼으셨
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감사했습니다. 감격을 잃지 않았습다. 하나님의 일꾼은 죽어가는 영혼
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확신
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이 오
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더욱 많은 수
고를 하는 것은 빛진 자의 태도로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한 것이라고 고
백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직
분 수행을 위해서는 항상 양심에 민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
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불완전하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
므로 믿음에 파산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이웃도 받게 하고 싶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직분을 받은 것
에 더욱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직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기 때문
입니다.

▶ 기도 / 구원에 대한 감격과 직분에 대한 감사로 넘치게 하소서, 유병
세 선교사(일본)의 선교 사역에 역사하시고 가정 위에 건강의 복을 주소
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나라.』(딤후전 2:4)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우선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기도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
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
로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구령(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부의 고관들이나 위
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초점도 역시 영혼 구원이
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없는 평안한 생활을 하기 원하는 것은 역시 복
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는 다른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
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
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다른 기도도 그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 기도 /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
(독일)를 통해 독일에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딤편 2:10)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권면하십니다. 기도예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며 장신구로 꾸미지 말로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또한 여자는 종용하며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는 선행으로 사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도 선행으로 자신의 인격을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도 외모로 아름답게 보이려고 너무 신경쓸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자도 기도예 힘쓰고, 오히려 더욱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더욱 선행에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아무래도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성경에서 특히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인격에서 나옵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외모에 관심이 많으므로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보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치장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남자도 생존경쟁을 핑계로 다툼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선행과 사랑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기도예 힘쓰고 선행으로 단장하도록 합시다.

▶ 기도 / 기도예 힘쓰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선교의 장이 확장되며 애굽 교회예 영적 부흥을 주소서.

『미쁘다 이 말이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딤후전 3:1)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목사님과 장로님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면 이런 덕목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자격이 있나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가져서도 아니됩니다. 모든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중직자들은 이 자격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더욱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자신의 영적 성숙의 척도로 삼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은 직분을 사모하기를 간접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 직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선한 성도는 성장의 주요 척도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매우 귀중한 말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악하지 않는 것은 신앙 성장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몰라서 문제라기 보다는 알면서도 간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한 인격의 소유자는 4절과 12절처럼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7절처럼 직장이나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한 것을 사모하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인격에서 남의 비난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기도해 힘써야 합니다.

▶ 기도 / 선한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를 통하여 복음이 이스라엘에 충만케 되며 현자인 목회자가 많이 양성되게 하소서.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딤편 3:15)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져 율법주의, 금욕주의, 심지어 배금주의 등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썽 많은 에베소 교회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보는 사람이 다 놀랄 만큼 큰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지금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이야 어떻든 간에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힘써 봉사하고, 어려운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봉사합시다.

▶ 기도 /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기둥과 반석이 되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편 4:8)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오후 아내의 일터로 가는 길을 알아보기 위해 아내와 함께 시내 버스를 탔습니다. 늦가을이라서 날씨도 쌀쌀하고 빗방울까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니깐 어떤 부인이 조깅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이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한참 웃었습니다. 별로 날씬하지 않은 상당히 거구의 애기 엄마가 몸에 꼭끼는 반팔, 반바지 조깅복을 입고 길 옆 인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맨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애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그 유모차를 밀면서 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운동은 해야겠는데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었나 봅니다. 그 부인은 자신의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길어야 백년도 가지 못하는 몸의 미모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애쓴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경건은 몸의 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건의 운동은 이 세상은 물론 저 하늘 나라에서의 미모와 건강을 지켜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침마다 땀니까? 에어로빅을 하십니까? 약수터에 가거나 스포츠를 하십니까?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영을 위한 경건의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오늘 하루도 경건을 훈련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소서. 깊은데 선교사(홍콩)의 사역에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홍콩이 복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먼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딤편 5:4)

바울은 초대 교회 당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던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다루면서(행 6:1) 과부들의 구제 문제는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교회가 맡을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대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대하는 것을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호뎡하게 해드리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에 곧잘 비교합니다. 아낌 없이 주는 사랑. 자식이 잘못할 때는 매로 나타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웃으시는 얼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웃는 모습을 보려면 부모님을 웃으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되듯이, 하나님의 웃으시는 모습을 보려면 부모님의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모님들께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을 서럽게 만들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의 웃음이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 기도 / 우리로 하여금 노인들과 부모님을 무시하고 귀찮아 하는 이 땅의 풍습을 좇아 살지 않고 부모님의 백발을 존경하고 효도를 다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김형선, 한영자(뉴질랜드), 이기성, 박정아(호주) 평신도 선교사가 현지 적응을 잘하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딤편 5:17,20)

장로 교회에 있어서 장로들은 기둥과 같습니다. 장로들의 믿음이 바르면 그 교회가 바르게 되고 장로들의 믿음이 잘못되면 온 교회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일을 바르게 잘 처리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합니다. 장로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장로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교회 전체가 깊은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장로의 허물 문제를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디모테에게 권고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장로의 권위는 마지막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이든 다스리는 장로이든 교회에서 장로에 대한 존경은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는 잘못을 범할 때에도 여전히 존경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까닭없이 장로를 허물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두세 증인을 통해 장로의 잘못이 밝혀지면 장로의 잘못은 평신도의 잘못과 다르게 매우 엄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경계가 되고 잘못된 사람이 교회의 치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표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영원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직분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지 알아서 이 직분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 온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되게 하소서. 돕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부흥을 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그러나 지족(知足)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딤편 6:6)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어릴 때 톨스토이 단편집에서 읽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대지주 한 사람이 종을 불러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하였습니다. ‘내일 네가 해가 뜨면서 지기까지 발로 밟고 돌아오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종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밤을 기다렸다가 지평선에 태양이 보이자마자 걷기 시작합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정신없이 걷다가 하늘을 쳐다보니 어느새 해는 서쪽 중천에 떠 있습니다. 아이쿠 늦었구나! 이제 돌아가야지. 종은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계속 달려서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주인의 집에 닿았지만 종은 너무 먼 거리를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달려와 주인의 발앞에 엎드려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종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주인은 많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그에게 줄 것이라고는 그가 묻힐 두 평의 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경건까지도 수단으로 삼아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정도로만 족한다면 믿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는 점을 잊게 맙시다.

▶ 기도 / 우리로 하여금 이미 주신 가정, 직장, 재물로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셔서 재물로 인해 시험드는 일이 없게 하소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딤편 6:17)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그랜저를 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부자들을 경멸하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부자들이여 재물은 불확실한 것이다’ 잠언 23장 5절을 보면 재물이 어떻게 불확실한 것인지 말해줍니다.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처럼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걸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부자에 관해 말씀합니다. 첫번째 부자는 이 세대에 대하여 부자이지만 두번째 부자는 선한 일에 대한 부자입니다. 부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할 기회와 재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재물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특급 열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등에 진 큰 보따리가 되어 좁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막 10:23-35). 여러분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마음을 낮추고 남의 아픔을 나누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재물도 나누어주기를 즐겨하면 천국에서도 부자가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부자입니까?

▶ 기도 /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돈의 날개를 보게 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금요찬양집회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14)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복음 전파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에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보였던 모든 믿음과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 생활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바른 말”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말”은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고백과 삶을 위한 복음 진리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것”이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악한 세력과 우리 주변으로부터 다가오는 악한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구원과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해 고난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신앙과 삶을 실천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음을 지키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 기도 /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실천하게 하소서. 멸망선교단과 장애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소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딤후 2:11)

바울은 아시아 성도들의 배반과 오네시브로의 충성을 이야기 한 1장의 후반부에 이어 2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담대함으로 신실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고 왕노릇하게 해주는 복음을 지키며, 주와 함께 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와 함께 하여 승리하는 신앙의 삶은 세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요, 둘째, 비록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만방에 전파될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요, 셋째, 택한 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주와 함께 죽고 살 것이란 믿음의 신앙으로 모든 성도들도 주를 위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내가 죽게 하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고 주의 평화의 소리가 충만케 하소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1)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큰 집 안에 있는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즉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교회 안에도 많은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큰 일에 합당한 역량있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일을 잘하는 독특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큰 집에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이 있듯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로 귀히 쓰임받을 일꾼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시대가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선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깨끗하게 예비되어 있는 그릇을 귀히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 일꾼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릇들이 되어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 일꾼들이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 기도 /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진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 민족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7)

바울은 성경의 본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알맞은 책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교회에 의해서 정경, 즉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된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중에 본문에만 나오는 것으로 모든 성경은 그 기원과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시사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롬 11:11, 빌1:19).

성경은 사람들에게 크게 네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 모든 성경은 성도들을 교훈하는 데 유익합니다. 둘째, 성경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데 유익합니다. 셋째, 성경은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넷째, 성경은 성도들을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같이 성경은 참된 유익을 줌으로써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모든 유익을 더하여 온전하게 해줌으로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 기도 /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농약자들의 교회학교인 에바다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큰 믿음을 주소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진리를 멀리하고 거짓 교훈을 좇아가는 영적 무지를 범할지라도 이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당한 사람들의 모습은 복음을 듣지 않고, 거짓 스승을 섬기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각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과같이 각 직분의 범위와 종류도 다양한데, 즉 양육과 가르치는 직분, 봉사의 직분, 복음 전파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의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요, 곧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기꺼히 그 일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실로 직무를 다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맡겨주신 직무를 깨닫게 하시고 주신 직무를 믿음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새 봄과 같은 순전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딤후 4:18)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바울의 1차 투옥때 일어난 것으로(빌 4:13) 이때에는 단 한 사람도 바울을 변호하려는 사람은 없었으며 모두 그를 떠나 버렸으나 주께서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1차 투옥때 곁에 계셔서 능력있게 해주시고 사형을 면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상에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주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여 더 많은 전도 여행을 하게 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욱 더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분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신앙의 인내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의 본이 되어 불신자들을 구원얻도록 하기 위해 지금 결단하십시오.

▶ 기도 /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에 쓰임받으며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주님 5월에도 함께 하소서.

제14과

안방에 있는 아내

· 찬송 : 28장, 305장

· 성경 : 시 128:1-6

· 요절 : 시 128:3

“네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네 집 내실에 있는 아내

앨빈 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에서 가정이 파괴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시험관 아기의 탄생, 독신주의의 팽창, 일부다처제의 재등장 등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의 결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결혼한 부부의 여덟쌍 중에 한쌍은 이혼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해에 48,000쌍이 이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구 1천명당 1.5쌍으로 부산이 으뜸이고, 서울, 대구의 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혼의 사유는 부부간의 불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꼭지여주신 아내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 내실에 있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곁에서 유순하고 조용함, 즉 평온의 샘이 되어 주는 아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소중함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 책임을 다하는 아내

행복한 가정은 스스로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 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네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다른 이에게도 흠모의 대상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라. 결혼식에 나갈 때는 세 번 기도하라."

• 적 용

1. 우리 가정의 행복이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기도하면서 고치도록 합시다.
2. 나는 남편(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요?

• 기 도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제15과

고난주일 - 내가 목마르다

· 찬송 : 136장, 144장

· 성경 : 요 19:28-30

· 요절 : 요 19:28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 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의 세 가지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뒤의 네 가지 말씀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가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1. 주께서 우리 대신 버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 27:46)라는 네 번째 말씀이 하나님과 절연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 대신 버리심을 받으시고 우리는 구원얻게 되었습니다.

2. 주께서 우리 대신 불못의 형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심을 받은 후에 “내가 목마르다”(요 19: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갈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 불못의 목마름의 형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 절에 한 부자가 죽어 음부에 내려가 불못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아브라함

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것은 죄값으로 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값 역시 불뭇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3. 주께서 육체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으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하신 후 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고 말씀하실 때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죽으셨습니다.

· 적용

1.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서로 나누어 말해봅시다.
2.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의 각오를 한 가지씩 말해봅시다.

· 기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 혜에 감사드리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제16과

부활주일 - 죽은 자가 살리라

· 찬송 : 150장, 159장

· 성경 : 요 5:21-29

· 요절 : 요 5:28-29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회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나 아라비아 메카성 마호멧의 무덤을 자랑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것이 바로 회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외에 육체가 다시 살아 영생한다는 진리를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1.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력으로는 살 수 없지만 타력으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초목들이 온도, 습도, 공기 등의 힘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죽은 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전 6:14)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2.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고리도전서 13장 23

절에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은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곧 성도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3. 부활한 사람의 몸은 어떠합니까?

첫째,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몸입니다(눅 23:39). 둘째,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입니다(고전 15:42, 눅 20:36). 셋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물질과 시간 그리고 공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4. 부활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완전한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며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마 24:26, 25:13).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지구 전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 있는 성도들도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살전 4:16, 17).

·적용

1.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2.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있을 감격을 서로 얘기해봅시다.

·기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 죽은 몸도 다시 살리셔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17과

여호와께서 주신 자식

· 찬송 : 278장, 305장

· 성경 : 시 127:1-5

· 요절 : 시 127:3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
급이로다"

자식은 부모의 대리인이요, 자랑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이 부모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때가 지난 날 있었습니다. 즉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1.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3절)

자식은 부모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믿음의 조상들은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통하여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많은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부모의 자랑이 되며, 후대에 그 혈통이 계속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2. 장사의 수중의 화살(4절)

장사는 수중에 화살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전투를 행하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 자신을 지켜주며, 평소에도 마음 든든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모도 자식을 의지하며, 자녀로 인하여 마음을 든든히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은 부모에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3. 전통에 가득한 자의 복(5절)

당시에는 화살이 가득한 전통(箭筒)을 가진 사람이 보호를 받듯이 자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에서는 논쟁과 재판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때에 유력한 자식을 둔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결과요 공로인 것입니다. 자식들은 나의 역할이 부모님의 입지를 세워드리라는 것임을 알고 정성을 다하여 효도해야 합니다.

• 적용

1.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2. 나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자랑감이 되고 수종의 화살과 같은 든든함을 드리고 있습니까?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제18과

선조의 신앙

· 찬송 : 234장, 241장 · 성경 : 렘 35:12-19

· 요절 : 렘 35:18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
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
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요나답은 예후 시대 사람으로서 그의 혁명 운동에 참가했습니다(왕하 10:15). 그리고 레갑의 자손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 다. 그러 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은 여호와와 말씀 순종치 아니하여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데서 돌이키지 않았습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선조의 교훈을 잘 따르 레갑의 후손에게 는 영원한 복이 약속된 반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선포 되었습니 다.

1. 선조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족속(12-15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앙과 생활의 율법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경건 하여 그들 앞에 놓인 포도주가 가득한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율법을 준종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 다.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렘35:6)라는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 다. 경건한 선조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 다.

2. 선조의 신앙을 거역한 유다(16-19절)

레갑 족속과는 대조적으로 유다 족속은 많은 선지자들의 교훈과 명령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이들은 선조들의 교훈에 귀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성실히 행한 선조들의 유산을 이어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적용

1.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교훈과 유산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일성수, 십일조 등)
2.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신앙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 기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신앙을 잘 이어가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소서.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 날의 기도와 그 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